



매디슨 한인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홍진국 클레멘스 (608) 231-2350

본당홈페이지: <http://club.catholic.or.kr/thekccm>

[연중 제 13 주일]

2009년 6월 27일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정상혁 토마스 아퀴나스, 김현숙 엘리사벳

다음주 독서:

이번주 복사: 강선우 마르가리타, 박경은 요세피나

미사 해설: 전은숙 글라라, 우명희 카타리나, 신정혜

세레나, 조형준 스테파노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회 계: 정상혁 토마스 아퀴나스

정리 및 성당 문단속: 사목위원

+ 지난주 우리의 정성

6/13 봉헌금: \$ 159

6/21 봉헌금: \$ 133

합 계: \$ 292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 양지웅 라파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7월 2일) 저녁 7시, 사제관. [신부님]
금요교리: 신앙입문	격주 금요일 (7월 9일) 저녁 7시, 사제관. [신부님]
학부생 성서모임	추후 공지

<복음 계속>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쿤!”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열두 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 <바울이>

유판식 토마스



<제1독서> 지혜서 1,13-15; 2,23-24 <악마의 시기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

<제2독서> 코린토 2 서 8,7.9.13-15 <풍요롭게 사는 사람은 궁핍한 사람들을 채워 주십시오.>

화답송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

○ 주님께 찬송한 이들과,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

○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 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고, 주 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 알렐루야.

+ 마르코 5,21-24.35 ㄴ-43

그때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아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뵈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서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 댔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계속

[영성체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오늘의 성가] 시작: 26 봉헌: 210 성체: 506 파견: 6

† <생명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장광재 요아킴 신부 | 상설고해사목부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복음의 제목은 “아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하혈하는 부인을 고치시다”입니다. 곧 주님의 치유 기적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혈하는 부인은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봅니다. 여러 방면의 의사는 물론 용하다는 점쟁이까지 찾아갔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것으로 나왔다고 하면 그걸 사용했고 저걸로 나왔다고 하면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약을 구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고통과 좌절뿐이었겠지요. 병은 병대로 몸은 몸대로 지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자렛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 어떤 재산도 남지않은 그녀는 혼자 생각합니다. ‘가난하고 병까지 있는 날 주님은 만나 주실까? 아니야 난 그분을 만날 자격도 없어.’ 그러나 그녀에게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낫고 싶었고 주님은 꼭 낫게 해줄 수 있으리란 믿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많은 군중 속에 자신을 숨긴 채 주님의 옷자락 만이라도 잡으면 낫겠다는 생각에 뒤에서 옷을 잡았습니다. 단지 주님의 옷에 손을 댄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녀를 주님께서 찾으셨고 부인은 엎드려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라고 하십니다.

반면 아이로라는 회당장은 아픈 딸을 위해 먼저 예수님께 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가십니다. 가는 도중에 집에서 사람들이 와 회당장의 딸이 죽었음을 알려 줍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물론 죽은 회당장의 딸도 살아납니다.

오늘 복음에선 세상의 모든 방법을 통해 병이 낫기를 바란 여인이 모든 것을 잃고 마지막에 와서야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주님의 축복까지 받게 된 사건과 회당장의 믿음을 통해 죽은 딸을 살려 주신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사랑이신 주님께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꼭 들어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시고자 하혈하는 여인과 아이로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재산이나 능력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나약한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도망치고 싶은 모습, 죽고 싶은 모습 그대로 주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절 살려 주십시오”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기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있는 인내의 한 주간이길 기도합니다.

† <알려드립니다>

❖ 알려드립니다. 많은 교우분들의 참여와 협조로 지난 주말의 여름 캠프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캠프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도와주신 여러분들, 특히 사목위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여름 캠프에 참가하셨던 교우분들께서는 캠프비용을 회계담당 정상혁 형제님께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캠프비용은, 성인 2인 1실의 경우 일인당 \$50, 3인 1실 이상의 경우 일인당 \$40, 고등학생 \$30로 정하였습니다.

❖ 오늘 미사중 2차 헌금이 있겠습니다. 이번달과 7월달의 2차 헌금은 매디슨에 있는 Multicultural Center 도움 기금으로 기부될 예정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Multicultural Center는 매디슨 교구에서 운영하던 어려운 이들을 위한 봉사기관입니다. 부부가 같이 일을 나가는 가정을 위한 무료 Nursery service, Homeless 들을 위한 급식 봉사, 그리고 이민자들을 위한 영어 교육등의 사회봉사 기능을 담당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부활절과 성탄절등 큰 축일에 St. Paul 에서 미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미사를 드리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5월, 교구의 재정난으로 더이상 운영이 불가능하여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현재 Queen of Peace 성당을 중심으로 센터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장애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공동체에서 작은 정성이나마 Multicultural Center 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에 보탬이 있다면 나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디슨 교구에 속한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리고 Multicultural Center를 이용하던 사용자로서 어쩌면 또 당연히 해야하는 일일 것입니다. Multicultural Center 를 위한 2차 헌금에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이번달의 공동체 저녁 식사는 지난주 캠프때의 식사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공동체 저녁 식사는 없습니다.

❖ 다음주 (7/4) 주일학교는 쉽니다.

❖ 나성인 토마스 아퀴나스, 강희정 마르타 가족께서 지난 목요일날 매디슨 공동체를 떠나 일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매디슨에 계시는 동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해주신 두분 가족께 감사드리며,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두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